

# 광양 '달리는 공기청정기' 첫 수소버스 운행 개시

첫 수소버스 3대 운행... 오는 8월 시내버스 2대도 운행 계획

광양시에서 첫 수소버스가 출고되어 3월부터 운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수소버스는 관광버스로, 그동안 수소승용차에 집중했던 광양시 수소차 보급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수소 버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달려 안에 관광버스 8대를 추가 보급하고 오는 8월부터는 수소 시내버스 2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약 71억원(국비 58억, 도비 10억, 시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구입 보조금으로 1대당 수소 고상버스 3억 7천만 원, 수소 저상버스 3억 9천만 원을 지원한다.

구입 보조금을 감안하면 민간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수소 고상버스 2억 원, 수소 저상버스 1억 3천만 원으로



일반버스 구입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소버스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버스에 비해 차량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으며, 배기가스나 탄소

배출이 없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릴 만큼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다. 수소버스 1대가 중형 경유차 40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수소버스는 전기버스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충전시간은 전기버스가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에 비해 수소버스는 10~20분으로 짧고, 한번 충전으로 운행이 가능한 거리도 전기차는 400km 미만, 수소차는 500km 이상으로 길다.

신호희 신산업과장은 "이번 수소버스 출고를 시작으로 수소차 보급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에서 지원하는 수소승용차 구입 보조금 혜택과 함께 수소차 구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수소버스 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소승용차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신산업과(061-797-2831)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조순의 기자

## 신안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 연다

'100+4피아노 섬 축제' 맞춰 오는 28일 개최

신안군은 '춤'을 소재로 MZ 세대를 겨냥한 '2024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자은면에서 열리는 '100+4 피아노 섬 축제'에 맞춰 오는 28일 오후 3시 '1004 뮤지엄파크'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참가 자격은 전국의 춤꾼들로 접수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 60팀을 모집하고,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2차 본선에 진출할 20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 20팀은 행사 당일 '신안군 1004 뮤지엄파크' 주무대에서 5인조 여성 팀별 5분 내외의 단체 퍼포먼스 경연을 통해 최종 3팀을 선발한다. 시상

금은 1위 2000만 원, 2위 1000만 원, 3위 5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이다.

심사위원은 우리나라 안무·댄스계의 거목급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 아이키스트리트 우먼 파이퍼(혹리더), 켈빈(장작 안무), 리벨(스트리트 댄스) 등 3명이며, 심사위원 3명의 공연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축하공연은 지난해 제1회 보라해 댄스 경연 대회 우승팀인 '마화연'과 '혹(HOOK)'이 출연한다.

'마화연'은 7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일명 손가락 춤으로 알려진 텃팅 크루팀이고, '혹'은 5인조 여성 그룹으로 M.net 스트리트 우먼 파이퍼 준우승팀이다. **신안=강숙복 기자**

## 강진 서부해당화 축제 기간 환급 이벤트

1인당 최대 1만원... 상품권 1억원 지급

강진군은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성공을 위해 축제기간인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동안 축제장을 방문한 후, 강진관내 상가 물품구입 및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강진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예산소진 시 종료된다.

1인당 당일 소비금액 5만원 이상은 5천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응모방법은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축제장을 방문해 종합안내소에서 이벤트 응모 신청서를 수령한 후, 방문 스탬프를 지정된 장소(현장에서 안내)에서 찍은 후, 강진관내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지참해, 강진을 극장동(삼양불링장 옆) 상품권 교환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자는 관광객·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의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모바일 신분증 불가)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당일 강진 관내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만 인정되고, 상품권·현금영수증, 제로페이·착모바일 영수증, 캡처사진 등은 불가하다.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영수증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벤트에 참여할 이용객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반값여행 사전 예약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벤트 기간동안 1인당 1회 지급 가능하다.

상품권 환급 장소는 강진을 극장동 삼양불링장 옆 교환부서이며, 상품권 부스 운영시간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강진군은 건전한 이벤트 참여문화 조성하고 상품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카드사 매출승인·취소 확인 통의를 사전에 받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정 수급 적발 시에는 상품권 회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리를 추진한다.

/강진=한홍수 기자

## 무안 일로농공단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42억 원 확보... 청년문화센터 건립·노후 공장 리뉴얼 추진

무안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4년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일로농공단지가 선정되어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패키지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으로, 군은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을 투입해 1992년 준공 이후 시설이 노후화된 일로농공단지에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농공단지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총 57억 원을 투입해 현재 사용 중인 식당과 관리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회의실, 공유오피스, 동아리 활동

실과 관리사무실을 조성한다. 또한 2층 1동을 신축하여 1층에는 식당과 카페, 체력단련실, 2층에는 13실 규모의 기숙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숙사는 타지역 출퇴근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에는 10개의 입주업체가 참여하고 노후한 공장 시설 보수와 복지 공간 정비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일로농공단지협의회회장 김대근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환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실, 공유오피스, 동아리 활동

결실을 보게 되었다. 사업 후에도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공공도서관, 보건소, 인근 5개 마을과 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였다.

김산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로농공단지에 부족했던 편의시설과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로농공단지에는 일로용 상신거리 일원에 168,000㎡ 면적으로 1992년 준공되어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99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무안=김성문 기자**

## 순천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입주 작가 최종 3인 선정

순천시는 2024년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레지던시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이번 2024 순천시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는 전국 공모를 통해 최종 3인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는 박소현(영상, 평면), 지민희(설치), 안순현(만화)이다. 선정된 작가들은 오는 4월부터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공간에 7개월간 입주해 작품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개인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화기(오픈 스튜디오)', '에:솔레잡기(예술체험 프로그램)', '결과보고전'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단은 "작업 역량과 지역 연계성 및 웹툰 애니메이션 육성에 도움이 될 만한 작가 선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심의평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순천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장안창작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의 주 활동공간인 장안창작마당은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의 거리에 조성됐다.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비롯해 순천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장안여인숙 등이 운영됐으며, 31명의 작가가 레지던시와 함께했다.

심의를 맡은 "작업 역량과 지역 연계성 및 웹툰 애니메이션 육성에 도움이 될 만한 작가 선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심의평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순천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장안창작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의 주 활동공간인 장안창작마당은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의 거리에 조성됐다.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비롯해 순천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장안여인숙 등이 운영됐으며, 31명의 작가가 레지던시와 함께했다.

심의를 맡은 "작업 역량과 지역 연계성 및 웹툰 애니메이션 육성에 도움이 될 만한 작가 선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심의평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순천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장안창작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영암군-부여군, 마한·백제문화권 교류 업무협약

박정현 부여군수 등 왕인문화축제 찾아 '우호교류 협약식'



영암군이 지난달 29일 군청에서 충남 부여군과 '우호교류 협약식'을 갖고, 상생발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실시한 '복합형 행복정책 벤치마킹'에서 인연을 맺은 두 도시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마한·백제문화권으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정현 부여군수와 장성용 부여군의회의장은,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인 이날 영암군을 방문해 두 도시의 상호교류 시작을 알리고, 우송회 영암군수와 강찬원 영암군의회의장과 마한·백제문화권 교류를 선도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오후 영암왕인문화축제 주무대에서는 두 도시의 교류에 의미를 더하는 '영암군-부여군 우호교류협약 체결 축하공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의 가아금 연주, 부

여군 충남국악단의 설장구놀이, 경기·백제민요 등 공연이 열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송회 영암군수는 "두 지역은 2,300년 전 함께 '마한'이었고, 2,000년 전 함께 '백제'였다. 마한·백제문화 공유를 기반으로 경제, 문화관광,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상생발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기초, 고대 마한의 중심 영암과 백제문화의 수도인 부여가 서로 상생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 두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양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도록 연대해나갈 것이다"고 화답했다.

영암군은 서울 영등포구와 경남 산청군과 자매결연, 대구 동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있다. 이날 부여군과 우호교류 협약이 자매결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김영두 기자**

## 진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연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공매하고 명단공개·출급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이후에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에 고를 통해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처분을 잠시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는 군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면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재명 기자**

## 광양, 마을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시

고령 어르신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직접 방문

광양시는 공중보건의사 경로당(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 공중보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원거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6개 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지역주민의 질병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연중 운영한다.

추진인력은 의사 6명과 간호사 18명으로, 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의료서비스는 ▲의과 진료(급·만성 질환 진료, 복약지도) ▲방한 진료(침 치료 등 맞춤형 한방진료) ▲당뇨·고혈압 측정, 치매(선별) 조기검진 등이며,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6개 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지역주민의 질병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연중 운영한다.

추진인력은 의사 6명과 간호사 18명으로, 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광양=조순의 기자**